

다가온 계약 만료, 이다영·재영 쌍둥이 자매는 어디로?

그리스 PAOK 지난해 10월 합류...계약기간 한 시즌

이다영 유럽 구단 러브콜·이재영은 일단 재활에 매진

해외에서 한 시즌을 보낸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 이재영과 이다영은 지난해 10월 그리스리그 1부팀 PAOK 테살로니키에 합류했다. 같은 해 2월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로 V-리그에서의 활약이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해외 진출을 택했다. 최초 이재영에게 관심을 보였던 PAOK는 판을 키워 두 선수를 동시에 품었다. 계약 기간은 한 시즌, 이달 중순 시작되는 포스트시즌이 막을 내릴 때 동시에 계약이 만료되는 방식이다.

원 무릎이 좋지 않은 이재영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줄곧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 수술 대신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소요되는 재활을 택하면서 PAOK 복귀가 무산됐다. 이재영과

PAOK의 인연은 이대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다영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별다른 부상이 없었던 이다영은 서서히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확실한 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재영(6만 유로·약 8300만원)보다 적은 3만5000유로(약 4800만원)라는 몸값에서 알 수 있듯 처음에는 이재영에 대한 팀의 기대치가 더 컸지만,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이다영이 한 시즌을 무사히 치르면서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가능성을 확인한 일부 구단들이 영입 의사를 내비치면서 1년 전과 달리 복수의 선택지 중 고를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선 것이다.

유럽을 대표할만한 클럽들의 러브콜은 아니지만, 이다영에게는 유의미한 변화다.

한 배구 관계자는 "이다영이 몇몇 팀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좀 더 빛날 수 있는 환경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출전 등을 고려해 아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국내 유턴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이다영은 틈이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유럽 무대 흥전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이다영이 속한 PAOK는 정규리그 3위로 포스트시즌에 안착했다. 그리스리그 플레이오프는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PAOK는 14일과 17일 6위팀 AEK 아테네와 격돌한다. 단기전에서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다영의 주가는 더욱 올라갈 수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이다영도 팀원들과 마지막 승부를 준비 중이다.

유럽 잔류로 굳어진 이다영과 달리 이재영의 차기 시즌 행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우선 무릎 상태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영·이다영 (사진 = PAOK 테살로니키 SNS 캡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팀 없이 홀로 재활하다보니 여러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이재영의 경우 지금 당장은 새 팀을 구하는 것보다 무릎 치료가 우선인 듯 하다"고 전했다.

'해트트릭' 손흥민, EPL 한 시즌 개인 최다골 타이

2020~2021시즌 17골과 동률...공식전 최다 22골과는 4골 차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가운데)이 9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 중 득점 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30·토트넘)이 리그 한 시즌 개인 최다골과 타이틀을 이뤘다.

손흥민은 10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치러진 아스톤빌라와의 2021~2022시즌 EPL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골을 터뜨려 토트넘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전반 3분 만에 선제골로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은 후반 5분 데얀 쿨루세비츠키의 추가골 이후 후반 21분과 26분 연속 골을 더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이번 시즌 리그 15~17호골에 성공한 손흥민은 득점 선두인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20골)를 3골 차로 추격했다.

최근 3경기에서만 무려 6골을 집중시키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리그 한 시즌 개인 최다골과도 타이틀을 이뤘

다. 2020~2021시즌 리그에선 17골을 넣어 한 시즌 개인 최다골 기록을 세웠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도 17골로 동률이 됐다.

이제 남은 경기에서 1골만 더 추가하면 18골로 자신의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운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1골)까지 추가하면 올 시즌 공식전 18호골을 기록 중이다.

2020~2021시즌 공식전 한 시즌 개인 최다였던 22골과는 4골을 남겨뒀다.

아울러 손흥민은 2020년 9월20일 사우샘프턴과의 2021~2021시즌 2라운드(4골) 이후 EPL에서 두 번째 해트트릭에도 성공했다.

2017년 3월13일 밀wall과의 2016~2017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전 해트트릭까지 포함하면 공식전 세 번째 해트트릭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시절에는 2013년 11월 함부르크와 2013~2014시즌 분데스리가 12라운드와 2015년 2월 볼프스부르크와 2014~2015시즌 21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바 있다.

단짝 해리 케인과 함께 EPL 역대 최고의 콤비로 불리는 손흥민은 후반 21분 케인의 도움을 받아 EPL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을 40골로 늘렸다.

한편 손흥민의 맹활약에 힘입은 토트넘은 리그 4연승을 달리며 EPL 4위(승점 57) 자리를 수성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5위 아스널(승점 54)과는 승점 3점 차다.

EPL은 4월까지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진다.

뉴시스

역부족 절감한 정찬성, 두번째 도전도 눈물...4R TKO패

UFC 273 페더급 타이틀전서 볼카노프스키 맞아 4라운드 TKO패

'코리안 좀비' 정찬성의 두번째 도전도 아쉬움과 눈물로 남았다. 하지만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너무나 강했다.

정찬성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비스타 베테랑스 메모리얼 아레나에서 열린 UFC 273 페더급 타이틀전에서 4라운드 45초만에 TKO패를 기록했다.

정찬성은 지난 2013년 8월에 열린 UFC 163에서도 조제 알도를 맞아 첫 타이틀전을 치렀지만 4라운드 2분만에 TKO패를 기록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찬성의 어깨가 탈구되면서 대이상 싸움 수 없게 된 것이었지, 극단적으로 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정찬성의 완벽한 패배였다. 정찬성도 경기가 끝난 뒤 "몸 상태도 좋았고 준비도 완벽했다. 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 것 같았다"며 완패를 인정했다.

정찬성의 패인은 역시 볼카노프스키의 얼음



장처럼 냉정한 타격에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정찬성은 1라운드부터 볼카노프스키와 수 싸움을 하다가 안면이 너무나 많은 펀치를 허용했다. 정찬성의 오른쪽 안면은 금세 붉게 물들었다.

1라운드부터 너무나 많은 펀치를 허용한 탓에 그로기 직전까지 불리는 위험한 상황이 맞았다. 2라운드 역시 다르지 않아 경기가 끝날 뻔한 장면도 있었다.

정찬성이 3라운드부터 조금 더 거리를 좁혀

가며 볼카노프스키에게 펀치를 쏘긴 했지만 볼카노프스키는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경기를 풀어갔다. 잦은 펀치 허용으로 힘이 빠진 정찬성은 4라운드 원투 펀치를 허용하자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다. 더이상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다.

정찬성은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더이상 챔피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격투기를 더 하는 것이 맞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앞서 열린 밴텀급 통합 타이틀전에서는 챔피언 알렉산더 스틸링이 잠정 챔피언 페트리안을 상대로 2-1 판정승을 거두고 1차 방어에 성공했다.

지난해 3월 7일 열린 UFC 259에서 안에게 반칙승을 거두며 챔피언 타이틀을 따냈던 스틸링은 부상으로 1년 가까이 재활을 해왔다. 1년여만에 재데뷔를 펼친 스틸링은 그라운드 기술로 안을 팽공 묶으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나가 판정승을 거두고 진정한 챔피언이 됐다.

뉴시스



장수연은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파72·6395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7억원·우승상금 1억2600만원) 최종 라운드에서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로 우승했다. KLPGA 통산 4승

장수연, KLPGA 개막전 승리...4년7개월만 우승

장수연(28·동부건설)이 올 시즌 KLPGA투어 개막전 우승을 차지했다.

장수연은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파72·6395야드)에서 열린 KLPGA투어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7억원·우승상금 1억2600만원) 최종 라운드에서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로 우승했다.

지난 2017년 9월 이수그룹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4년 7개월만의 감격스러운 우승이자, 지난 2016년에 이어 이 대회 사상 첫 2승 우승을 거두게 됐다. KLPGA 통산 4승.

마지막날 선두 나희원(28)에 3타차 공동 4위로 출발한 장수연은 이날 버디 5개 보기 1개로 4타를 줄이며 선두 그룹을 모두 제치며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장수연은 디펜딩 챔피언 이소미(23)와 공동 1위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던 가운데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과감한 홀 공략으로 2번만의 그린에 공을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아쉽게 이글 퍼트가 빗나갔지만 버디를 잡

아내며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친 장수연은 이소미의 마지막 홀 경기를 지켜봤다.

이소미 역시 과감한 2번째 샷으로 홀 공략에 나섰지만 어렵게 그린 주변 러프에 빠졌고, 3번째 어프로치 샷에서 실수를 범하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파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2016년 4월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이 대회에서의 짜릿한 장수연의 대회 2번째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장수연은 우승후 방송 인터뷰에서 "너무 오랜만의 우승 도전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최선을 다하지는 마음으로 마무리했다"며 "사실 열렬한데 오랜만의 우승이어서 힘들었던 부분도 기억나고 부모님도 생각났다"고 말했다.

"워밍 샷이 된 마지막홀 2번째 샷에 대해 장수연은 "어제 이 홀에서 이글을 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담대한 마음으로 쳤던 것 같다"며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곳에서 다시 우승을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슬비기자

목포해양대 '카누·조정·요트' 해양스포츠단 창단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카누·조정·요트' 등 해양스포츠단을 창단하고 운동부 육성에 나선다.

전남체육회는 목포해양대가 카누, 조정, 요트 등 총 3개 종목 13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된 해양스포츠단을 창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수단은 김지현 교수 겸 해양스포츠센터장과 김민석 카누팀 지도자, 조정 오윤재·허명현, 카누 김경민·장원우·신진주·권은희·박민지·백경한·장현준·박수현·정유비, 요트 신현빈으로 구성 됐다.

또 선수들은 해양건설공학과, 조선해양공학

과, 해양컴퓨터공학과, 항해정보시스템학부에 소속돼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다.

이 중 카누 박수현과 정유비는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카누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원희 목포해양대 총장은 "해양스포츠단 창단은 해양스포츠 진흥과 저변확대 전남체육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선수들이 해양스포츠를 통해 신해양 시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